“통도사, 한국전쟁 야전병원이었다”

10월 1일 국군의 날, 용화전 미륵불 복장물 공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통도사가 한국전쟁 당시 부상병을 위한 치료 공간으로 활용됐음을 알려주는 사료(史料)가 발견됐다. 전쟁 당시 유물이 훼손되고 스님들이 머물 공간을 내어주는 등 시대 아픔을 위로하고 민생과 함께 한 통도사의 역사가 드러나면서 지역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통도사(주지 현문)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용화전(龍華殿) 미륵불소조좌상 복장 유물을 공개하며, 호국불교로 활동한 통도사 역할을 설명하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통도사 경내에서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주지 현문 스님은 용화전 미륵불 소조좌상 복장 유물인 연기문을 설명하며 “한국전쟁 당시 3000여 명의 부상병을 치료하는 육군병원이 통도사 내에 설치됐고 부상병 치료를 위해 스님들이 도움을 줬다. 연기문에는 당시 통도사 사찰과 각 법당, 요사채 및 암자는 무너지고 깨져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용화전 미륵불은 파괴돼 못 볼 지경이라고 설명돼 있다”면서 “이는 당시 상황을 생생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연기문은 “불기 2977년 경인년(1950) 6월 25일 사변 후(佛紀二千九百七十七年庚寅六月二十五日事變後) 국군상이병 3000여 명이 입사하야(國軍傷痍兵三千餘名이入寺하야) 2979년 임진년(1952) 4월 12일에 퇴거(二九七九年壬辰四月十二日에退去)”라고 밝혀두고 있다. 이어 “즉 사찰 각 법당 각 요사 각 암 전부 퇴패되는(則寺刹各法堂各寮舍各庵全部頹敗는) 불가형언중 용화전 미륵전은 (不可形言中龍華殿彌勒佛은) 영위 파손 돼 불가견여(永爲破損되야不可見餘)”라며 미륵불소좌상 조성 이유를 밝혔다.

확인된 연기문서 증거들 발견
6.25 전쟁 당시 3000여 군인
부상자 치료 위해 전각 비워줘
내년 한국전쟁 70주년 천도재

현문 스님은 “당시 군인들이 있는 동안 수많은 불상과 경판, 문헌 등 성보문화재가 훼손되고 유실됐다”며 “지장보살을 모신 명부전은 군교회로 사용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상황을 목격한 김진조 의학박사는 군인들이 군홧발로 용화전을 드나들고 불상 앞에 재떨이를 놓고 담배를 피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다.

설명에 따르면 설법전 자리는 당시 텃밭으로 군인들이 소를 잡아먹는 장소로 이용됐고, 종이로 만든 경책은 불쏘시개나 휴지로 사용되는 등 경내는 혼란을 겪었다. 하루 10명이 죽어나가며 사중에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 힘든 일들이 매일 이어졌으며 정진하던 스님들은 걸망을 꾸리지도 못한 채 통도사를 비워야 했다. 하지만 일부 스님들은 부처님을 모신 도량을 떠날 수 없다며 부상병 치료를 도왔고 또 사하촌에 머물며 부상병 간호에 힘을 보탰다.



통도사가 한국전쟁 당시 부상병을 위한 치료 공간으로 활용됐음을 알려주는 문건이 발견됐다. 주지 현문 스님이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용화전(龍華殿) 미륵불소조좌상 복장 유물을 설명하고 있다.

현문 스님은 “전란 중에 축산 구하 스님은 통도사로 피난 온 스님들을 단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받아들였다”며 “비록 살림이 어렵고 세상이 어지러웠지만 대중을 위한 자비심으로 맞이한 통도사였다”고 강조했다.

통도사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영혼을 위로하는 수륙고혼천도재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또 용화전 수리 및 보존과 미륵불을 모시게 된 연유를 널리 알린다는 의지를 밝혔다. 용화전 미륵불은 당대 율사였던 자운 성우 스님과 월국 정기 스님이 모연했으며 1952년에 조성됐다. 미륵불은 한국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발원한 스님들의 마음이 담긴 증거로 중요도가 높다. 복장 유물에는 연기문 외 미륵상생경, 일체여래전신사리보치진언, 진언, 오륜종자진언, 화취진언, 진언봉투, 복장봉투 등 8점이 함께 담겨 있다. 현재 복장 유물은 통도사 성보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통도사는 수륙고혼천도재를 통해 1000미륵불을 봉안하고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며 나라가 융성하도록 국태민안을 기원할 예정이다.

현문 스님은 “내년이면 6.25 한국전쟁이 70주년을 맞는다”며 “통도사에서 발견된 이 자료는 격동기의 중요한 사료가 된다. 국가에서조차 기록되지 않은 내용으로 중요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선대스님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 항상 함께 한 호국불교 역할을 보여주며 통도사가 전쟁 당시 31육군병원 통도사분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국민들과 공유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불교사암연합회장 도완 스님이 장병들에게 연비를 하고 있다.

정읍 이순신연대 호국사 수계법회

내장사 주지 도완 스님 “행복한 병영생활 기원”

정읍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완)가 향토부대인 이순신 연대 장병들을 위해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정읍사암연합회는 9월 28일 이순신연대 호국사에서 불자장병들을 대상으로 삼귀의계, 오계, 십선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내장사 주지 도완 스님을 전계화상으로 진행된 수계법회는 정읍불교대학 학감 우일 스님, 정토사 주지 일묵 스님, 내장사 가운 스님, 노명종 연대장을 비롯한 장병 60여 명과 정읍불교대학 재학생들이 동참했다.

도완 스님은 “계를 받아 수지하는 것은 진실한 불제자로 거듭 나겠다는 다짐”이라며 “불제자로서 행복한 병영생활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명종 연대장은 호국사를 신축하고 장병들의 종교활동을 적극지원해준 도완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지난 1년간 법회를 이끌어온 권태정 군법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강한 상병은 “수계법회를 마련해준 정읍사암연합회 스님들과 내장사 도완 스님에게 감사드린다”며 “계를 잘 지키고 생활하는 불자로 거듭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찬란한 가야문화, 시민과 함께

제3회 가야효문화축제, 10월 12~13일 김해서

가야문화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축제로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다.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송산)은 10월 12~13일 김해 수릉원 일대에서 제3회 가야효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축제는 12일 오후 5시 국악과 현대음악의 콜라보를 보여주는 오프닝 공연으로 시작해 오후 6시 30분 개막식을 진행한다. 가수 김재경의 축하공연이 이어지며 특별공연으로 가수 김연자의 화려한 무대가 막을 올린다.

13일 오전 10시에는 ‘제2회 가야청소년 국악 · 민속무용 경연대회’와 ‘제2회 가야문화권 청소년 백일장’이 열린다. 어르신을 위한 만발공양 후 오후 1시에는 효 콘서트 및 경연대회 시상식이 이어진다. 오후 3시에 제2회 가야 ‘극’ 페스티벌이 열리며 마지막으로 김해시민과 함께하는 금강경 독송과 클래식 공연으로 마무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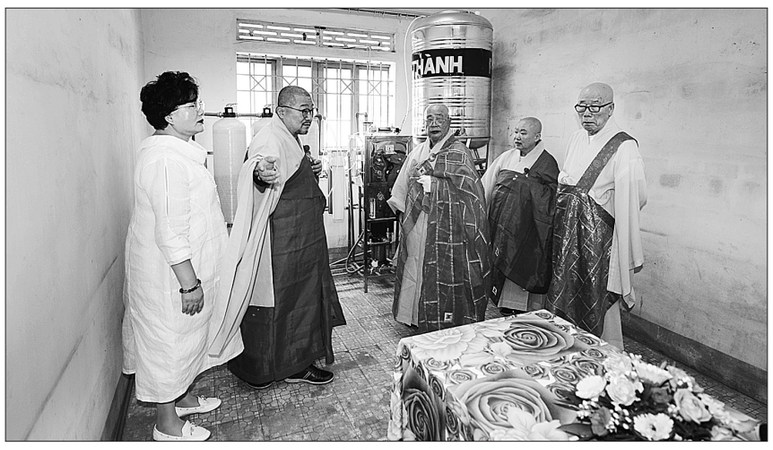
이사장 송산 스님은 “가야문화진흥원은 가야역사 문화를 바로 세우는 지렛대가 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베트남 아이들 행복 발원한 태고종

전북종무원, 노쩔럼초교에 태양열전기 식수대 설치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은 9월 22~27일 베트남을 방문, 24일 부오흔시 노쩔럼초등학교에서 정수식수대 준공식을 개최했다. 23일에는 베트남 닥락성 프억빈사(주지 민후엔)와 광푸시문화회관을 방문해 초 · 중학생 등하교용 자전거 100대를 전달했다.

24일 노쩔럼초교에서 열린 식수대 준공식에는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前총무원장 도산 스님, 정읍 일광사 주지 승천 스님, 지방종회의장 법전 스님, 전북영산재보존위원회 원경 스님, 총무국장 행담 스님, 명현 스님, 탑사 총무 정해 스님과 박금태 복성산업개발 회장, 박용주 주일건설 대표, 이경희 혁신금속 대표 등이 참석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왼쪽 두 번째)이 종단 스님들에게 새로 설치한 식수대를 설명하고 있다.

노쩔럼초교에 설치한 식수대는 태양열전기를 이용한 정수기로 학생들이 보다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원했다.

준공식에서 진성 스님은 “한국과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충과 효를 중시하고 불교가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등 많은 점에서 닮았다”며 “비슷한 정서를 갖고 있는 양국은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준공식에 앞서 베트남방문단은 23일 닥락성에 위치한 프억빈사와 광푸시문화회관을 방문, 복성산업개발의 후원으로 초 · 중학생 등하교용 자전거 100대를 전달했다.

진성 스님은 “이 자전거를 타고 힘차게 달릴 어린이 여러분을 상상하니 먼 길도 피곤할 줄 몰랐다”고 기쁨을 표했다. 스님은 “모든 중생이 행복하길 발원했던 부처님 가르침을 잊지 말고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힘껏 달리기 바란다”며 “어린이들에게 자전거를 후원해 주신 복성산업개발과 탑사 신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 홍보대사 ‘동자 스님’ 체험을

홍법사, 동자승 단기출가자 모집

홍법사가 천진불의 미소로 시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동자 스님들을 모집한다.

홍법사(주지 심산)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제14기 동자승 단기출가 참가자를 사전 모집한다. 홍법사 단기출가 동자스님은 행자 생활과 삭발수계식을 거쳐 정식 스님 생활을 체험하게 된다. 이어 부처님오신날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통도사, 부산연등축제,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지방경찰청 등에서 활동을 펼친다. 4~6세 아동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단기출가 기간은 2020년 4월 10일부터 31일까지 총 21일이다.

홍법사는 “어린 시기 부처님을 향한 불심의 씨앗을 심는 선근의 기회이자 포교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좋은 기회”라며 관심을 독려했다. (051)508-0345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조계종

계율청정종단

■ 종정 대행 : 혜 인
총무원장 대행 : 법 광 사서실장 : 천 산 율원장 : 혜일
중앙선원장 : 도일

■ 원로원 : 혜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 총무원
부 원 장: 동안, 도불, 서봉금산
총무부장: 법성
재무부장: 혜만
교무부장: 혜일
사회부장: 동오
문화부장: 태산
총무국장: 남산
재무국장: 정일
교무국장: 율조
사회국장: 법일
문화국장: 호산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교육원장: 무공
교육부원장: 덕산
교육부장: 법광
교육국장: 진산
포교원장: 정산
포교부장: 송산
포교국장: 영암
국제포교원장: 천산인월
기획원장: 혜타
기획실장: 대덕화
호계원장: 법철
호계부장: 태산
규정부장: 명원
규정국장: 지산
호법부장: 법안
호법국장: 지호
감찰원장: 정오
감차부장: 백산지견
감찰1국장: 금산
감찰2국장: 인산
비구니회장: 지성
비구니부장: 혜승
교수사: 덕산
총무: 금산
부회장: 혜산, 해원
재무: 도은, 정해
교무:본각, 수정
교육: 보림, 성담
문화: 남산, 진화
포교: 보명, 홍산
강원: 각원, 해인
복지: 화광, 무연
감찰: 서호, 보현
불화: 혜담, 인산
의식: 련성, 지해

▣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현조
경기종무원장: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자명
경기남부종무원장: 해인
인천종무원장: 혜원
강원종무원장: 광덕
충북종무원장: 학산
충남종무원장: 혜덕
경남종무원장: 백산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천산
경남창원종무원장: 지원
경북종무원장: 덕운
부산종무원장: 서봉금산
울산종무원장: 법철
광주종무원장: 지각
전남종무원장: 도명
전북종무원장: 법성
제주종무원장: 청호
일본오사카종무원장: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해산
베트남종무원장: 청목

◆ 학교법인 삼화학원 ◆

▣ 불교조계종 대학림
학 장 : 혜일
교 수 : 해운, 진산, 태산, 덕산, 현조, 혜승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오,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 불교조계종 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 중국남경중의약대학
교 장 : 혜인
부 교 장 : 손영진
한국총장 : 홍창석
교학처장 : 손 정
학생처장 : 지안영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기자: 나윤하
사회부기자: 이근진
편집인: 문화부장 태산, 문화국장 황산, 사회국장 법산
이사: 혜원, 정산, 각원, 덕산,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경기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경북총림 대국사

▣ 전국신도회
전국신도회장: 홍창석
고문: 설주성
수석부회장: 윤근
여신도회장: 김준자
서울신도회장: 서우연
부산신도회장: 허민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 청년신도회
회 장: 손정일
홍보처장: 이근진
기획대리: 나윤하
기획실장: 홍의현

총무원 :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6가길 50-1 (돈암동 83-2)
총무국 : 02)511-2026~7 / 팩스 : 02)511-2028
종단사업부 : 02)549-1918
총무원장실 :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 02)511-2026~7
일간동국신문사 : 02)511-1080
홈페이지 : 불교조계종.kr (www.jogye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 www.buddhijogyesm.co.kr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이메일 주소 : samhwade@naver.com
samhwade@hanmail.net